

제 60 호

연중 제 2 주일

1974. 1. 20

#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 【강 료】

## 가장 동정심이

많으신 분

범 석 규 신부



오늘날은 세계의 역사중에서 참 사람이되며 참 神이신 예수그리스도 이상으로 매력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사람들중에 성 프란치스코만큼 사람의 마음을 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인격을 만들어 내는데 예수님과 같이 남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은 본보기와 성 프란치스코의 그 매력적인 수법을 항상 잊지 않고 있다면 훌륭한 “당신”을 만들어 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며 쉽게 남의 마음을 사로 잡는 인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실행이 따른 동정이라는 것은 온갖 매력있는 성격의 기본제료입니다.

남에게 동정하고 어떻게든 도와준다면 당신은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동정을 자기 자신의 성질로 하고자 내가 예를 쓸 때, 예수님이 보이신 실천적 동정의 허다한 실례중의 어느 한 가지를 골라서 상기해 보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 과방에 술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주인공인 신랑이 얼마나 곤경에 빠졌을가 하고 생각하시고는 잠자코 물을 술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 그 노고를 살피셨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무리를 하며 단식을 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밤중에 울음을 터뜨린 수사(修士)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가? 한 그릇의 죽을 쑤어서 이 굶주린 수사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것은 이 수사 혼자에게만 먹게 하면 부끄러워 할까 생각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정이란 참 사람이되며 참 천주이신 예수께서 지니고 계셨던 수많은 성질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분을 모방하신 성 프란치스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분은 다 함께 참 좋은 인격을 만들어 내는 또 다른 여러가지 성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성질을 배우고 그 성질을 모방한다면 참 좋은 인격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은 땅이 당신 앞에 꿇어 엎드려 당신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나이다.

####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 62 : 1-5, 경향잡지 1월호 P. 51)

신부를 두고 신랑이 기뻐하리라.

□증계송 ○당신의 거적을 만백성에게 두루 알리라. 나날이 구원하심을 널리 퍼뜨리라. 당신의 영광을 백성에게, 그 거적을 만백성에게 두루 알리라. ◎

□제2독서 (고린트 전서 12 : 4-11, 성서 P. 391)

같이신 한 성신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신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기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받아 누리게 되었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2 : 1-12, 성서 P. 205)

예수께서 가나촌에서 당신의 첫 거적을 행하셨다.

#### □신자들의 기도

1. 일치의 성신이며, 당신의 영광을 더욱 현양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2. 화해의 성신이며, 진정한 일치는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화해하는 데에 있음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소서. ◎
3. 하나이신 주여, 내 가정, 우리나라, 당신의 교회가 하나로 일치하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 하소서. ◎

✦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아멘.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또 믿나이다.

#### (4) 폐회식

### ＊숲정이 산책＊



□신앙인의 상식□



### 십자표와 팔을 위로 쳐들어 벌리는 것

박진량 신부

우리는 하루에도 수 십번씩 가슴에 십자 성호를 긋는다. 또 미사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작은 십자를 긋기도 하고, 사제가 긋는 십자표를 통해서 축복을 받기도 한다. 이제, 미신자들 앞에서 이 십자표를 긋는 것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표시하게끔 되었다.

그리고 미사드리는 '사제가 팔을 위로 쳐들어 벌리는 자세를 자주 본다. 이것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며, 왜, 그런 표시를 하게 되었을까?

십자표를 긋는 것 - 예수님께서 십자가(+)자 모양의 형틀 위에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십자모양이 교회 예전 생활에서 사용된 것은 좀 나중의 일이다. 예전 중에 십자표를 긋는 것은 3세기에 아프리카와 로마에서 시작했다. 그 시대에는 가축을 방목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양이나 말의 뒷 잔등에 일정한 표로 낙인을 했었다.

그때서 예전 중에 사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표시하며 비록 보이지는 않으나 낙인 처럼 없어지지 않는 인호를 박아 준다는 뜻으로 이마에 십자표를 그었다. 그후에 이마 뿐만 아니라 입, 코, 귀 등 오관에까지 (오늘날 병자 성사에서 볼 수 있음) 긋게 되었고 드디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십자표를 긋게 까지 되었다

그 다음에 축복하는 표시로 쓰여졌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자주 긋는 성호경과 같이 가슴에 큰 십자표를 긋기까지 발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표를 그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스스로 생각하며 정성껏 그어야 할 것이다.

팔을 위로 쳐들어 벌리는 것 - 이것은 「사제적 기도를 바치는 독특한 자세」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초세기에는 모든 신자들이 기도를 바칠때 취하던 자세이기도 했다.

베르톨리아노 교부는 이 자세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을 재현시키는 뜻이라고 했고, 또 어떤 교부는 이 자세는 헤브레아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승된 것이라고 했다.

이 자세는 또한 사제가 회중에게 인사할 때 취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 그리스도교 일치

-교회일치 사무국

교회 일치 운동은 먼저 분리를 초래한 인간적 관점에서 서로가 상대를 볼 것이 아니고, 자기 교회의 일치를 주시고 우리 시대에 그것을 실현하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볼 것이다.

우리는 1974년도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필립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사도 바오로가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 관(觀)을 일치의 조건과 영감으로 묵상해 보자.

1. 일치의 정신을 가질 것 (필립 2:1-5)

(참조: 고린트 전서 12:12-20, 마태오 18:15-20)

질문: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2.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 (필립 2:6)

(참조: 로마 5:12:21, 마태오 4:1-10)

질문: 어떤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생활에 관한 우리들의 관념에 집착하려는 유혹을 당하고 있는가?

3. 종이 되셨다. (필립 2:7)

(참조: 베드로 전서 2:18-25, 마르코 10:35-45)

질문: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불리움을 받았는가?

4.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순명하시다. (필립 2:8)

(참조: 히브리 5:1-10, 마르코 15:33-39)

질문: 우리는 순명의 한계를 어디에 두려 하는가?

5.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삼으셨다. (필립 2:9)

(참조: 사도행전 2:32-36, 요한 18:33-37)

질문: 우리가 일치하여 대답해야 될 그리스도의 왕국의 표지는 어디에 있는가?

6. 모든 장수와 백성들이 경배하다. (필립 2:10)

(참조: 복시록 7:9-12, 마태오 28:16-20)

질문: 일치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예배와 찬미가 중심이 되는가?

7. 성부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주님으로 환호하다. (필립 2:11)

(참조: 고린트 후서 4:3-6, 요한 12:44-50)

질문: 우리들 사이에 현대의 가짜 신은 무엇인가?

8.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 작용하시니,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쓰시오. (필립 2:12-13)

(참조: 요한 1서 3:1-10, 루가, 9:23-27)

질문: 우리에게 있어서 일치물 이루는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으며, 분열을 이루는 죽음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경향잡지 74년 1월호 참조>

조흥(사자표)페인트 대리점  
(집결 전문)

대동지 페인트상사  
고급벽지  
비닐장판  
하드보드  
각종페인트

● 동문 사거리 전화 5986  
임정원 (도민교)

선물용 케익과 빵, 파자, 찰싹떡 준비!

프랑스 제과  
\* 임금님 찻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5011 찻집 5013  
김원준(야고버)

※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화장 ※

결혼 미용실

교우 여러분께 반액 봉사  
● 중앙성당 앞  
전화 6794  
이현 (메테사) 올림

양 지 쪽



일 치

텔레비전을 통해서 월드 컵 축구경기를 구경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잘짜여진 팀 역, 정확한 패스, 날카로운 슈트 등은 그대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랄 수 밖에 없다. 어떤 때는 사람을 보지 않고 차는 것 같은데도 붙은 정확하게 자기 편에 가 있는 것이다. 어쩌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가지의 교훈을 찾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일사불란한 팀원ियो, 또 하나는 훌륭한 작전(계획)에 따른 철저한 훈련(연습)이다. 이 모두는 일치(一致)라는 말로 그 촛점이 맞추어 진다. 그 촛점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 단 한사람이라도 그 촛점을 못맞출 때, 마스게임은 실패하는 것이고 카드섹션도 금이 가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그 일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한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를 잘 넘기고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다. 발을 들러가며 시장 한모퉁이에 좌판을 벌여 놓고 생선 몇마리, 과일 몇알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정에 술과 화투적으로 세월을 보내는 아버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철없이 빵집이나 뒷골목을 배회하는 아들이 있어서도 안되고, 한 나라의 살림에 있어서도 말할 것이 없다.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도 바오로의 개종축일을 앞두고 지내는 그리스도 교 일치 주간이 앞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병폐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지 못하고, 교육이 사회에 앞서 빛을 주지 못하고 이끌어 다니는 점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교무금이 제대로 만들어 오고 주일금 성적이 부진한 것만이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느끼고 행동한 적은 없는가? 그러면서도 가난한 과부의 한푼을 아무 생각없이 썩은 것은 없는가? 문제는 항상, 물질적인 것에 앞서 정신적인 것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데에 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마음과 마음의 일치요, 하느님과의 일치이다. (H)

요심이 (27) 김병오



가톨릭 센타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3498)

- 24 (목) 8시..... "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25 (금) 8시..... 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 월~금요일 7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성 바오로 서원

\* 이 주간의 성경 \*

- 21(월)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 기념  
독서(고린전 전서 1: 26-31, 성서 P. 371)  
복음(마태오 13: 44-46, 성서 P. 32)
- 22(화) 성 빈첸시오 부제 순교  
독서(히브리 6: 10-20, 성서 P. 503)  
복음(마르코 2: 23-28, 성서 P. 79)
- 23(수) 독서(히브리 7: 1-3, 15-17, 성서 P. 504)  
복음(마르코 3: 1-6, 성서 P. 80)
- 24(목) 성 프란치스코 주교학자 기념  
독서(에페소 3: 8-12, 성서 P. 440)  
복음(요한 15: 9-17, 성서 P. 246)
- 25(금) ▲ 사도 성 바오로의 개종 축일  
독서(사도행전 9: 1-22, 성서 P. 284)  
복음(마르코 16: 15-18, 성서 P. 120)
- 26(토) 성 디모테오와 디도 주교 기념  
독서(디모테오 후서 1: 1-8, 성서 P. 486)  
복음(루가 10: 1-9, 성서 P. 154)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관토호의 직자



문의처 : 전화 37692(진북동 어은골)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6094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남샤프 (T V) 냉장고 석유스토브

● 천주극장 동편 입구  
전화 8121  
여요셀(운창)

제4지구 6개 본당 소식

1. 구라 주일 (다음 주일, 특별 헌금 있음)  
나병에 신음하는 불행한 형제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리고, 구라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도 기억합니다.
2. 일치주간 (1월 18일~25일)  
갈려나간 형제들과 일치를 위한 공동 기도회, 좌담회, 친목회등의 행사로 그분들과의 뜻을 좁혀봅시다.  
※ 일치에 대한 말씀의 광장 (21일<월> 밤 7시반, 가톨릭 센터)  
주제: 교회일치 ("우리는 모두 한 형제다.")  
연사: 유 병곤 목사(신흥학교 교목), 범 석규 신부 (전동 주임신부)
3. 교리 교사 연수회 (28일<월>~ 2월 1일<금>, 가톨릭 센터)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본당은 협조하시는 의미에서 빨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꾸르실료 (2월 3일~6일, 가톨릭 센터, 회비 3,500원)
5. 전주 시내 사도회장단 회의 29일 (수요일) 시간: 오후 8시 장소: 가톨릭 센터

[소]

[식]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안복진  
@3874 사도 회장 이복석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합동 위령미사 (구정 오전 6시 30분)  
신친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 하오니 사무실에 신  
입하시기 바랍니다.
3. 꾸르실리스타 긴급회의 (본당 소속 전원)  
피정 기타 중요 안전 토의로 인해 오늘 밤 미사후  
본당 신부님 사무실에 모여 주십시오.
4. 피정 감사  
피정에 참여하시어 좋은 성과 견우어 주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5. 이 대권 (바오로) 신부님 감사합니다.  
애령회를 위해서 10,000원 특별 회사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헌금 40,200원 감사합니다.

구정을 맞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비오며, 교회 발전  
과 하나님의 사업에 더욱 분발하시길.....

(북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교부금 납부 요망 (재정 고갈로 본당 운영이 곤란)
2. 사재 양성비를 제달에 꼭꼭 납부하세요.
3. L. M. 교미시움 회합 (오늘 오후 1시30분-전동)
4. 예비자 교리 (수요일 저녁 7시 미사후, 공식 미사  
후)
- (5) 합동 위령미사 (구정 저녁 7시)  
※ 22일까지 정성어린 미사 성체를 위해 성명과 본명  
을 똑똑히 적어서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6. 유아 세례 (매월 화요일 오전 10시)  
□지난 주일 성미 2말 5되 (누계 241말 5되)  
지난 주일 봉헌금 13,511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합동 위령 미사 (구정 오전 7시)
2. 사도회 임원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피정 (2월 2일 오후 2시-3일 오후 8시까지)  
지정된 분 외에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단 식사는  
각자)
4. 교부금 신임 안하신분들은 속히 신임하여 주세요.  
□지난 주일 봉헌금 10,646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1. 본당 신축 공사 기공식 (3월 19일)  
신축 기금 납부에 적극 협조 요망.
2. 주일학교 교사 동계 봉사활동 실시  
① 기 간 71. 1. 14~71. 1. 19 (6일간)  
② 장 소 본당, 다리리공소, 황운공소, 왕정공소  
③ 봉사내용, 어린이를 위한 지도, (매월 오후 2시  
부터 실시)
3. 구정 합동 위령미사 (23일 오후 7시)  
22일까지 봉헌 예물 접수  
□지난주 신축 성미 2말 (누계 122말)  
지난 주일 봉헌금 14,900원, 감사합니다.
4. 4개공소 청년조직에 각 공소회장님의 특별한 협  
조와 사랑을 바랍니다. (회장임명: 유 완순 씨)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 미사후, 저녁 미사후)
2. 성심 유치원 원아 모집 (1월20일~2월25일)
3. L.M 교미씨움 월례회 (오후 1시 30분)
4. 영세자 사진 찾아가시오(사무실)  
□교부금 신임 현황 2,789,300원 (507세대)  
지난 주일 구유헌금 1,255원.  
애령회 특별 헌금 8,230원  
지난 주일 봉헌금 35,566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합동 위령 미사 (구정 오후 7시 30분)  
22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2. 구라주일 헌금  
다음 구라주일 헌금봉투 사무실에서 받아 가세요.
3. 애령회 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참석 요망.  
애령회 임원과 사도회 임원, 동회장님, 각 반회장님
4. 사도회 임원회 (2월 1일 오후 7. 30분)
5. 사도회 확대회 (2월 3일 오전 11시)  
☆ 축결혼 ☆ (1월 22일 오전 11시)  
신랑 김 기욱군 신부 유 희순양  
□지난 주일 봉헌금 6,785원, 감사합니다.

★ 대건 신용 협동조합 1억원 목표 목표품놀이 ★

1. 시상 내용  
1등 (1인) 텔레비 1세트 2등(2인) 고급자전거 1대씩  
3등 (3인) 백미(90kg) 1가마씩  
4등 (4인) 고급 라디오 1대씩 5등(5인) 밀가루 1포씩  
6등 (10인) 고급 만년필 1자루씩  
등의 (총회출석 전원) 고급 책보 1매씩
2. 추천권 발부요령  
1. 월례회 출석시 마다 1매씩  
2. 월례회 출석하고 100원 이상 출자하면 1매씩  
(1과 500원 초과마다 1매씩 추가)  
3. 매월 출자 불일 총액의 1과 500원마다 1매씩
3. 추천일시 (1975년 1월 총회시)